

다이쇼인 절: 마니텐(기도소)

마니텐은 다이쇼인 절의 경내 중앙에 우뚝 솟아 있는 장엄한 분위기의 건물입니다. 이곳에서는 ‘미젠 산의 수호신’이라고도 할 수 있는 ‘산키 다이곤젠’을 모시고 있습니다. 산키 다이곤젠이란, 신도(神道)와 불교의 융합(신불습합)이 강렬하게 구현된 귀신으로서 신도에서 신으로 모습을 바꾸어 나타난 부처를 말합니다. ‘귀신(鬼神)’이라고는 하지만, 영혼을 의미하는 귀신이 아닌 승상의 대상으로서 ‘신(神)’을 의미합니다. 산키 다이곤젠에 대한 신앙은 미야지마 섬에서만 볼 수 있는 독자적인 형태로서 일본 고대의 민간 신앙, 신도, 불교(지금은 각각 독립된 것으로 여기고 있음)가 1,000 년이 넘는 세월에 걸쳐 어떤 방식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는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산키 다이곤젠은 미젠 산 정상에 있는 산키도에서 정식으로 모시고 있는데, 마니텐은 본전까지 올라가지 못하는 참배객들이 산키도를 대신해 기도를 올릴 수 있는 장소입니다.

마니텐은 다이쇼인 절에서도 특히 최근에 지어진 건물 중 하나입니다. 1976 년에 곤젠즈쿠리라는 독특한 양식으로 건축되었습니다. 곤젠즈쿠리 양식은 배전(기도를 올리는 장소)과 본전(주요 성역)을 하나의 지붕 아래 좁은 복도로 연결하여 알파벳 ‘H’ 모양의 외관을 하고 있습니다. 굽이진 입구의 지붕과 지붕 안쪽에 용을 비롯한 상상 속 동물들이 정교하게 조각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가파른 계단을 따라 2 층으로 올라가면, 경내 전체와 바다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다만, 기도 의식이 거행되고 있을 때는 들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